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7. 15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아일랜드, 테러조직 가담혐의 '전직 여군' 징역 8년 선고
 - 7.11 아일랜드 검찰은 지난 '15년 ISIS에 가담하여 언론으로부터 'ISIS 신부'로 칭해진 자국 여군 출신 「리사 스미스」(42세)*에 대해 테러단체 가입과 충성맹세 혐의를 적용, 관련 범죄 최대형인 징역 8년刑 선고
 - * '11년 아일랜드 공군에서 복무 중 이슬람으로 개종 후 ISIS 前 수장 「아부 바르크 알바그다디」의 아내가 되고자 시리아로 입국하여 同 테러단체에 가입
- 스웨덴, PKK(쿠르드노동자당) 조직원 10명 튀르키예 송환 준비
 - 7.11 언론은 튀르키예 정부가 지난주 초 스웨덴과 핀란드 측에 PKK 및 '페토(FETO)*' 관계자 수십명을 넘길 것을 요구한 가운데, 스웨덴이 PKK 조직원 10명의 송환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
 - * 「에르도안」 대통령의 政敵인 在美 이슬람학자 「페트홀라흐 귄렌」을 따르는 조직으로 튀르키예 정부는 이들을 테러조직으로 규정

미주

- 美 재무부, “가상자산에 대한 국제적 규제 필요” 역설
 - 7.8 美 재무부는 가상자산이 돈세탁·불법금융·테러자금 조달·제재 회피 등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'가상화폐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위한 기본 틀'을 마련했다고 발표
 - * 가상화폐 발전과 관련,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가 존중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부연

- 美 연방수사국(FBI), 자국 內 정치적 극단주의 발호 우려 표명
 - 7.9 FBI 「크리스토퍼 레이」 국장은 CNN 인터뷰에서 “정치적 견해를 폭력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”며 최근 자국에서 극단주의로 치닫는 인종주의나 반정부주의 현상에 대한 우려 표명
 - * 또한, 그는 최근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 이후 대법관들에 대한 위협과 지난해 의회 난입사태 등을 거론하며 美 본토에서의 극단주의 발호를 경계

아 · 태평양

- 탈레반 최고지도자, 국제사회 대상 유화 메시지 발표
 - 7.7 탈레반 「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」 최고지도자는 이슬람 최대 명절인 「이드 알아드하」를 맞아 “우리는 미국을 포함해 세계와 정치·경제·외교적으로 좋은 관계를 원한다”는 성명 발표
 - * ‘은둔 지도자’로 불리는 同人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례적
- 인천공항공사, 6월 항공기 內 반입금지 위해물품 11만여건 적발
 - 7.10 인천공항공사는 전월 인천공항 항공기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 건수가 총 11만3,843건으로 前年 동기(36,552건) 대비 3배 이상이며, 主품목은 액체류(101,651건)>가위·칼(6,213건)>공구(1,472건) 順이라고 발표
 - * 하계 성수기 여행객 급증으로 기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건수가 늘고 있다고 부연
- 경찰청, 온라인上 총기 제작 정보 특별 단속 추진
 - 7.11 경찰청은 8.15까지 약 한 달간 전국 시·도 경찰청 사이버 요원 및 경찰서 총포·화약 담당관 등 1천여 명을 투입, 인터넷에서 공유되고 있는 총기류 제작 방법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발표
 - * 대부분의 총기 제작 방법이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에서 공유되어 게시자 특징이 어려운 점을 고려,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접속 차단에 주력할 예정

아프리카

- ISIS-西아프리카 지부(ISWAP), 나이지리아 교도소 습격 배후 자처
 - 7.7 ISWAP는 선전매체를 통해 “ISIS 전사들이 어제 나이지리아 아부자 쿠제 교도소를 공격해 수백명의 수감자 석방에 성공했다”며 교도소 습격 사건의 배후를 자처
 - * 지난 6일 무장괴한들이 同 교도소를 습격, 도주 재소자 879명 중 현재 443명 체포

탈레반, 아프간 정보기관 국가안보국(NDS) 지부 공격

- '20.7.13 아프가니스탄 북부 사만간주의 주도인 아이바크市 소재 NDS 지부 단지에서 자살폭탄, 총기난사 등 복합 테러 공격이 발생,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63명 부상
- 테러범 중 일부가 먼저 NDS 인근에서 차량을 이용한 연쇄 자살 폭탄공격을 자행하였으며, 이후 나머지 인원이 청사로 진입해 사람들과 건물을 향해 무차별 총기 난사
- 탈레반은 同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자처했으며, 사건이 벌어진 같은 날 바다크산州, 쿤두즈州, 파르완州 등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 공격을 감행하여 다수의 인명피해 초래
- 아프간 「가니」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“회담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폭력과 살인에 의존하는 것은 최악의 접근법”이라며 “탈레반은 폭력을 포기하라”고 촉구

* 美-탈레반 평화합의('20.2.29) 이후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도 협상 진행 중이던 상황

< 탈레반(Taliban) >

- **(결성)** 아프간 공산정권 붕괴('92.4) 후 시작된 내전중 「물라 오마르」가 '94.8 칸다하르州 마드라사(이슬람 神學校) 학생들을 규합, 결성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정치조직
※ 테러단체 지정 : '13.5 캐나다 / UN·美·英 등은 테러단체로 미지정
- **(활동)** '96.9부터 아프가니스탄을 실질적으로 통치했으나 '01.10 아프간戰 개전으로 축출 → 게릴라戰·테러 등으로 저항하다 '20.2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 → '21.8 미군 현지 철수 및 기존 아프간 정부의 항복 선언으로 아프가니스탄 再집권
 - '21년 再집권 이후, 국가운영 정상화에 노력중이나 ISIS-K(ISIS-호라산 지부)의 테러공세 강화, 反탈레반 세력 활동 등으로 정국 불안 지속
 - 또한, 지속되는 대테러의지 및 인권보호에 대한 의심증폭과 해외 자산동결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정부 승인 지연과 경제악화로 위기에 직면